

코로나19 대유행이 관광객의 체류 기간과 지출에 미친 영향: 강원도 영동지역에 대한 사례연구*

Impacts of the COVID-19 Pandemic on Tourists' Length of Stay and Expenditures: A Case Study on the Yeongdong Region in Gangwon-do

손철 Sohn, Chul**, 길승후 Gill, Seunghoo***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the length of stay and expenditures of tourists visiting the Yeongdong region using propensity score matching analysis and data from the National Travel Survey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 2019, 2020, and 2021. The propensity score matching analysis showed that the COVID-19 pandemic decreased tourists' length of stay and increased their expenditures on restaurants, groceries, and shopping, while decreasing their expenditures on travel activities and precious metal purchases. The above analysis shows how tourists who visited Yeongdong region in Gangwon-do, during the COVID-19 pandemic made choices to comply with the government's social distancing measures and realize their tourism desires while ensuring their safety. The analysis shows that shortening length of stay and seeking small but sure happiness in trips were the choices made by tourists in the Yeongdong region during the pandemic. Shortening the length of stay was a way for tourists to reduce the risk of infection. The pursuit of small but sure happiness means that tourists who were limited in the activities they could experience at tourist destinations under social distancing tried to overcome this situation by pursuing the small but sure pursuit of happiness through gastronomy which was available through delivery, takeout, and other options.

Keywords: COVID-19 Pandemic, Length of Stay, Tourist Expenditure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관광지의 지역경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지출액 합계라고 할 수 있다(Brida and Scuderi 2013). 지출액 합계는 특정 기간의 방문객 수, 체류 기간, 1인당 1일 지출액

등 3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Aguiló, Rosselló and Vila 2017; Baños-Pino, Boto-García, Del Valle and Sustacha 2023). 코로나19 대유행(COVID-19 Pandemic)과 이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행은 감염 위험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관광객 행동을 유도하고, 관광의 기회 자체를 차단하였다. 그 결과 관광객 지출액 합계와 관련된

* 이 논문은 "손철, 길승후. 2023. 코로나19 대유행이 영동지역 관광패턴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 강릉: 한국은행 강릉본부" 공동 연구보고서를 수정 보완한 것임.

** 강릉원주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제1저자, 교신저자) | Professor, Department of Urban Planning and Real Estate,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 Primary Author, Corresponding Author | csohn@gwnu.ac.kr

*** 한국은행 강릉본부 조사역 | Junior Economist, Bank of Korea Gangneung Branch | rftmdgn@bok.or.kr

3가지 요인과 함께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다양한 요인에 모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Wang, Meng, Siriwardana and Pham 2022; Wang, Tian, Filimonau, and Ning et al. 2022; Baños-Pino, Boto-García, Del Valle and Sustacha 2023; Vayá, García, Suriñach and Pons 2023).

앞으로 전 지구적 감염병 유행의 가능성이 기후변화, 도시화 및 세계화의 진전, 자연환경 파괴의 가속화와 함께 높아지고 발생 주기도 짧아질 것으로 예측된다(Alriol, Getaz, Stoll and Chappuis et al. 2011; Ross, Crowe and Tyndall 2015). 따라서 관광경제를 주요 기반으로 하는 지역의 경우 코로나19 대유행이 지역의 관광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이를 기반으로 미래의 유사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관광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해변 관광지인 강원도 영동지역 6개 시군(고성군, 속초시, 양양군,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을 2019년에서 2021년 사이 관광 목적으로 방문한 여행자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행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대유행이 관광객의 체류 기간과 1인당 항목별 지출변화에 미친 영향을 집중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유사한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도 지역의 관광경제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검토

1. 관련 이론 검토

관광객의 여행동기에 대한 Dann(1977)의 Push-Full 요인 이론과 Iso-Ahola(1982)의 사회심리학적 이론은 관광목적 여행의 기본적인 동기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

는 스트레스, 사회적 고립의 경험 등을 새로운 환경에서의 휴식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 극복하려는 것임을 말해준다(Yousaf, Amin and Santos 2018). 위 이론들이 시사하는 바는 관광목적 여행에 대한 욕구는 의식주에 대한 수요만큼이나 본질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코로나19 대유행하에서 국경봉쇄, 이동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로 관광목적 여행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여행이 소멸되지 않은 현상을 설명해준다. 즉, 사회적 거리두기가 기존의 생활공간에서 스트레스와 사회적 고립감을 가중시켰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광목적 여행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자연재해의 발생은 관광객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기에 때문에 여행이 불가피하다면 여행 중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자연재해 상황에서 개인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방어적 행동을 취하게 되는가를 가장 포괄적으로 설명해주는 Lindell and Perry(2012)의 방어적 행동이론(Protective Action Decision Model: PADM)에 의하면, 자연재해 상황에서 개인이 자신을 보호하는 방어적 행동을 실제로 취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인지된 위험이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19 대유행은 이러한 위험의 개인화가 매우 효과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라 할 수 있다. 감염의 기제와 감염 시 건강상의 영향에 관한 연구가 전 지구적으로 이루어졌고, 국가 차원에서 위험과 대응 방안에 대한 대국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권장되고 강제화되었다. 그 결과, 위험을 회피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순응해야 하는 개인과 가구는 관광 측면에서 여행의 취소, 감염의 위험이 적은 여행지의 선택, 감염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여행 활동 등의 다양한 선택을 하게 되었다.

관광 지출에 대한 미시경제적 효용극대화 이론

(Utility Maximizing Theory)에 따르면, 다양한 관광상품에 대한 지출은 예산제약하에서 개인의 선호를 반영한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선택 과정에서 결정된다(Brida and Scuderi 2013). 따라서 코로나19 대유행하에서 여행 중 안전을 추구하는 방향으로의 선호 변화가 있었다면, 이것은 여행 특성 및 지출에 반영된다. 즉, 안전을 위해 관광 중 특정 행동은 회피하고 또 다른 특정 행동은 선호하며, 특정 목적의 지출은 증가하는 반면 어떤 지출은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2. 경험적 연구 검토

코로나19 대유행이 관광객의 여행에 대한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 관광산업의 다양한 측면에서 실제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주요 연구들의 내용을 전 세계 및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의 영향, 지역 경제적 영향, 개인의 여행행태 변화에 대한 영향 등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전 세계 및 국가 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

김상혁, 송희원(2024)은 코로나19로 인한 우리나라 사망자 수 변화와 확산억제 수준의 변화가 관광 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벡터자기회귀모형과 한국관광 데이터랩의 신용카드 매출액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2020년 1월 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확산억제 수준의 변화가 사망자 수 변화에 비해 관광지출에 상대적으로 긴 기간 동안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사망자 수 변화는 쇼핑과 식음료 지출 감소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며 확산억제 수준의 변화는 여행서비스 지출 감소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Vaya, Garcia, Suriñach and Pons(2023)는 스페인의 2020년 이전 관광지 지출액에 대한 월별 데이터를 이용하여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인 2020년과 2021년의 관광객 지출액을 추정하고, 이를 코로나19 대유행하에서의 실제 지출액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는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대유행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할 때 국가적으로 관광객 지출이 75% 감소하였으며 2021년에는 5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지출액 감소치를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2020년 스페인에서 265만 개의 일자리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하여 없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Wang, Meng, Siriwardana and Pham(2022)은 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델을 이용하여 중국 경제의 성과를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강한 억제정책이 시행되었을 경우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강한 억제정책이 없었을 경우 중국의 실질 GDP는 11%, 고용은 15%, 국내여행과 해외로부터의 여행은 88% 감소하는 반면, 강한 억제정책이 시행된 경우 실질 GDP는 4.2% 감소하며 실업률은 6.6% 증가하고 국내 여행 수효는 41.8%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강한 대유행 억제정책이 경제 전체적으로나 관광 수요 측면에서 좋은 정책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송희원, 정광민, 김상혁(2022)은 벡터자기회귀모형을 이용한 반사실적 분석(Counter-factual Analysis)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과 재난지원금 지급이 관광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이를 시행하지 않았을 가상적 상황에 비해 관광 소비지출이 7%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여행 지출이 81.17% 감소한 반면 식음료 지출은 9.95% 감소하였다. 한편 렌터카 지출

은 70.28% 증가하였다. 동일한 반사실적 분석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의 경우 전체적으로 관광 소비지출이 11.53% 증가하였으며 숙박 관련 지출이 91.34% 증가하였고 식음료 지출은 18.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dreanna, Gualini, Martini, Porta and Scotti(2021)는 2016년에서 2020년 사이의 항공사가 주 단위로 제공하는 여행기 좌석 수 자료에 Seasonal ARIMA 모델에 기반한 Interrupted Time Series 분석을 적용하여 국제 지역별로 코로나19 대유행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0년 5월 전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항공사가 제공하는 좌석 수가 코로나19 대유행이 발생하기 이전에 비해 80% 감소하였다. 그리고 2020년 여름까지 중국, 동아시아, 북미 등지에서는 29%에서 54%가 감소하였으며 나머지 지역에서는 70%까지 감소하였다.

2) 지역 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

박수경, 강영준, 천영서(2024)는 일반화 적률추정법을 이용하여 관광객 지출감소가 제주도민의 카드지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 카드지출이 1% 감소할 경우 제주도민의 카드지출은 약 0.108%~0.147% 감소함을 보여주었다.

Han, Goetz, Eades and Entsminger et al.(2023)은 2019년과 2020년의 미국 48개 주 카운티에 대해 QCEW(Quarterly Census of Employment and Wages) 자료를 이용하여 코로나19 대유행이 각 카운티 관광(Leisure and Hospitality) 산업의 고용과 임금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2019년 3분기와 2020년 4분기를 비교할 때 농촌지역 카운티들이 대유행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덜 받았으며 일부는 오히려 고용의 증가라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을 보여

주었다. 이 결과는 미국의 여행자들이 감염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리한 비교적 인구 밀도가 낮은 농촌지역의 관광지를 찾았기 때문으로 해석되었다.

Wang, Tian, Filimonau and Ning et al.(2022)은 중국 주요 관광지(A-graded Visitor Attractions)에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2020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수입의 감소분을 관광지 관리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추정하였다. 손실액은 약 21억 달러로 추정되었고 손실 대부분은 2020년 1분기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Hesse and Vilchez(2022)는 대유행으로 인한 스페인 바르셀로나시의 관광객용 단기 임대주택 임대가격의 변동을 분석하였다. 2018년에서 2021년 사이의 가격 변동을 회귀분석 모델을 통해 분석한 결과 대유행 이후(2020년 4월 이후) 주택 전체를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가격은 11.3% 감소하였으며 방 1개를 임대하는 경우 4.5% 감소한 것을 보여주었다.

양재동, 김근현(2021)은 한국관광데이터랩의 관광 지출액 데이터와 한국은행 2015년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분석 결과 코로나19 대유행이 발생한 2020년 제주도 관광 부분의 관광지출액이 2019년에 비해 감소하였고, 그 결과 2019년에 비해 2020년의 관광 부분 취업유발효과가 4,057명 감소한 것을 발견하였다.

3) 개인의 여행행태 변화에 대한 연구

노윤호, 황영현(2023)은 국민여행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코로나19 대유행 전후의 국내 여행행태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대유행 후 근거리 방문이 증가하고 동반자 수와 여행경비 지출이 감소한 것을 보여 준다.

Baños-Pino, Boto-García, Del Valle and Sustacha(2023)의 연구는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을 이용하여 코로나19 대유행이 관광객의 체류 기간과 지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인 2020년 스페인 Asturias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의 체류 기간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에 비해 감소하였고, 숙박비용 지출은 감소한 반면 교통비용 지출은 증가하였음을 발견하였다.

Boto-García and Baños-Pino(2023)는 스페인 안달루시 지역의 주민에 대한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위기 시에도 위험을 감수하고 여행에 참여하는 개인의 특성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대유행 이전에 관광여행의 빈도가 높고 관광을 다른 레저활동보다 우선시하는 개인일수록, 대유행 시 실제 여행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러한 특성은 높은 소득수준 및 교육수준과 연관됨을 보여주었다.

Boto-García and Leoni(2022)는 2020년 6월 스페인의 국민 개인을 대상으로 2020년 여름철 여행계획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개인의 코로나19 감염 여부, 거주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등의 요인이 여름 휴가철 여행 참여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과 성향점수매칭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높은 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경험한 개인일수록 높은 수준의 여행 참여 의사를 가지는 것을 보여주었다.

강현수(2021)는 2019년과 2020년의 국민여행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코로나19 대유행 전후의 국내 관광행태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코로나19 확산 이후 저소득층과 고령층의 국내여행 감소, 근거리 당일 여행의 증가, 자가용 이용의 확대, 호텔 및 펜션 이용의 확대, 음식관광 활동의 증가 등의 패턴이 두드러진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2020년 국내여행 1회 평균지출액이 10만 9,000원으로 분석되어 2019년 13만 4000원에 비해 약 19% 감소한 것을 발견하였다.

3. 선행연구 결과 종합 및 연구 필요성

이상의 연구들은 코로나19 대유행하에서 관광객들이 위험회피와 사회적 거리두기 순응을 위해 여행을 취소하거나 여행 기간을 단축하였으며 감염 위험이 낮은 곳으로의 여행을 증가시킨 것을 보여준다. 또한 어떤 항목의 관광 지출은 늘린 반면 어떤 항목의 지출은 감소시킨 것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관광지의 소득 및 고용을 감소시키고 임대료 수준까지 하락시킨 것을 보여준다.

선행연구들 가운데 Baños-Pino, Boto-García, Del Valle and Sustacha(2023)의 연구는 코로나19 대유행이 모든 관광 지출을 줄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동 연구는 관광객들이 위험이 덜한 야외환경을 선호하면서 보다 이동적(Mobile)으로 된 것이 숙박비용은 낮추고 교통비용은 늘리는 데 기여하였다고 해석한다. Han, Goetz, Eades and Entsminger et al.(2023)의 연구도 유사한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관광객들의 지출을 직접 분석한 연구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우리나라에 대한 송희원, 정광민, 김상혁(2022)의 연구 결과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해 다른 모든 관광지출은 감소한 반면 렌터카 지출은 증가하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는 점에서 Baños-Pino, Boto-García, Del Valle and Sustacha(2023)의 연구와 유사한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동 연구에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한 한국관광 데이터랩의 카드지출 데이터는 신용카드 사용자의 활동 목적을 구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공된 것이다. 따라서 카드 사용목적이 관광목적인지 일상적 소비인지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점 때문에 한국관광 데이터랩이 제공하는 분석 가이드라인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자의 활동과 관련하여 '관광'이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다(한국관광공사 2021, 32).

앞서 이론 검토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관광목적 여행에 대한 욕구는 감염병 대유행 기간에도 억제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관광객들은 감염의 위험을 낮추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한 여행을 위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특정 항목의 지출은 늘리고 다른 항목의 지출은 늘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노윤호, 황영현(2023), 강현수(2021), 양재동, 김근현(2021) 등은 여행 비용 지출이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을 발견하였으나, 항목별 지출의 변화를 분석하지 않았다. 송희원, 정광민, 김상혁(2022)은 항목별 지출변화에 대해 분석하였으나 데이터의 한계로 분석 결과가 관광목적 지출에 어느 정도 연관된 것인지 알 수 없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대유행 기간 중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강원도 영동지역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서도 Baños-Pino, Boto-García, Del Valle and Sustacha(2023)가 스페인 Asturias 지역에서 발견한 패턴이 발생하였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관광목적 지출과 관련하여 증가한 지출항목이 있는지 집중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만약 이러한 패턴이 발생하였다면 증가한 지출항목에 착안하여 새로운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도 지역 관광산업이 적응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II. 연구지역, 데이터 및 방법론

1. 연구지역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 국경봉쇄로 해외여행이 상당 기간 불가능해지면서 강원도 영동지역(고성군, 속초시, 양양군,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은 대체 여행지

로 부각된 바 있다. 특히 고성군과 양양군은 2019년에 비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 방문객 수가 일관되게 증가하였다.

<표 1>은 한국관광 데이터랩이 제공하는 KT 방문객 수 추정 데이터를 이용하여 정리된 2019년에서 2022년까지의 영동지역 6개 시군의 연도별 외부 방문객 수 추정치를 보여준다. 동 기간 중 강릉시의 경우 최소 연 약 3천만 명(2021년)에서 최대 연 약 3천 6백만 명(2022년)이 강릉시를 방문한 것을 보여준다. 코로나 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을 기준으로 강릉시, 속초시, 양양군, 삼척시, 동해시, 고성군 순으로 연간 방문객이 많았으나, 2022년에는 강릉시,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순으로 방문객이 많았다. 이러한 순위 변화가 나타난 것은 동 기간 중 고성군을 찾는 관광객 수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표 1 _연간 방문객 수(KT 추정치)

(단위: 명)

시군구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강릉시	32,290,322	31,218,140	30,445,187	35,767,078
동해시	10,782,702	10,291,002	9,918,240	12,000,848
속초시	21,320,505	20,940,046	21,209,492	25,059,210
삼척시	11,388,744	10,718,284	10,420,586	11,750,987
고성군	10,547,244	11,008,350	11,558,959	13,099,862
양양군	13,852,651	15,227,856	14,368,660	16,830,009

<표 2>에서 A, B, C는 2019년 대비 2020년, 2021년, 2022년의 영동지역 6개 시군별 방문객 수 증감을 보여준다. 코로나19 대유행 전반기라 할 수 있는 2020년과 2021년 고성군과 양양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방문객 수가 2019년 대비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21년의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후반기인 2022년에는 방문객 수가 2019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강릉시와 속초시에서는 2020년과 2021년 감소

표 2_연간 방문객 수의 증감(KT 추정치)

(단위: 명)

시군구	A (2019년 대비 2020년 방문객 수 증감분)	B (2019년 대비 2021년 방문객 수 증감분)	A+B	C (2019년 대비 2022년 방문객 수 증감분)	C+(A+B)
강릉시	-1,072,182	-1,845,135	-2,917,317	3,476,756	559,439
동해시	-491,700	-864,462	-1,356,162	1,218,146	-138,016
속초시	-380,459	-111,013	-491,472	3,738,705	3,247,233
삼척시	-670,460	-968,158	-1,638,618	362,243	-1,276,375
고성군	461,106	1,011,715	1,472,821	2,552,618	4,025,439
양양군	1,375,205	516,009	1,891,214	2,977,358	4,868,572

합계보다 2022년 증가 폭이 커서 과거의 감소 폭이 대유행 3년 차에 모두 회복되었다. 고성군과 양양군의 경우 대유행하에서도 매년 방문객 수가 2019년보다 증가하였다. 반면 동해시와 삼척시는 대유행 전반기의 방문객 수 감소를 후반기에도 만회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영동지역 6개 시군 가운데 고성군, 속초시, 양양군은 대유행하에서도 관광객을 성공적으로 유치한 반면 동해시와 삼척시는 좋은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강릉시의 경우 관광객 수 측면에서 현상 유지 정도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과 <표 2>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강원도 영동지역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 초기에는 방문객 수가 다소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후 방문객 수가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거나 이전 수준을 초과하여 동기간 해외여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 관광지로 자리매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서 해당 지역을 연구의 대상지역으로 선택하였다.

2. 국민여행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코로나19 대유행이 강원도 영동지역 관광객의 체류

기간과 항목별 관광 관련 지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해 시행되는 국민여행조사 원자료(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였다.¹⁾ 1976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국민여행조사는 2017년까지는 매년 동일가구에 대해 여행실태를 패널 데이터 형태로 조사해왔다. 그러나 2018년부터는 더 이상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지 않고 있다. 즉, 동일가구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매년 샘플링을 통해 가구를 새로이 선정하여 개인별 여행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그래서, 2017년까지는 연간 2,497가구 패널, 총 6,309명을 조사하였지만, 2018년부터는 매월 2,000명씩 표본을 추출하여 연간 2만 4,000명을 조사하였고, 2019년부터는 매월 4,000명씩 표본을 추출하여 연간 4만 8,000명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와 가구원에 대해서는 여행 후 여행일기를 작성하도록 하여 여행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더불어 가구와 개인의 인구사회적 특성도 조사하고 있다. 여행실태에 대해서는 여행목적, 방문지, 방문기간, 교통수단, 여행 관련 비용의 지출, 만족도, 재방문 의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여행 관련 지출의 경우 여행준비 단계에서의 지출과 여행 중 및 귀가 과정에서의 지출로 구분하고, 여행 중 및 귀가

1) 국민여행조사 원자료(마이크로데이터)는 관광지식정보시스템(<https://know.tour.go.kr>, 2023년 9월 1일 검색)에서 내려받아 사용하였음.

단계에서의 지출은 교통, 음식점, 식료품, 쇼핑, 참여 활동,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록하도록 하고 있어 전국 및 지자체 단위 관광객 지출 현황을 파악하는 데 가장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 직전인 2019년 조사자료와 대유행 시기인 2020년에서 2021년까지의 연도별 조사자료 가운데 2019년 또는 2020년 2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 강원도 영동지역의 6개 시군(고성군, 속초시, 양양군,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만을 방문한 관광객에 대한 자료를 추출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2019년 2월에서 2021년 12월로 대유행이 영향을 미치는 기간을 한정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2020년 1월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이전이다. 최초의 확진자는 1월 20일 확인되었으며(이조은, 이경환 2023; 이진희, 박민숙, 이상원 2021), WHO(세계보건기구)에 의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발령된 시점은 1월 30일로 이를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전 또는 대유행 기간이라고 확정적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2021년 11월 1일 위드 코로나 정책이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2024년 5월 1일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관심단계로 낮아져 사실상 종식 선언이 내려지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표 1>과 <표 2>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2022년부터는 강원도 영동지역에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방문객 수 측면에서의 부정적 영향이 존재하지 않는다.

분석을 위해 체류 기간은 체류 일수로 정의되었고, 국민여행조사 마이크로데이터의 항목별 지출비용은 통계청의 월별 전국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2020년 12월 불변가격으로 환산되었다.²⁾ 그리고 항목별로 1인당 1일 비용으로 계산되어 분석에 이용되었다.

3. 성향점수매칭 방법

본 연구에서는 대유행으로 인한 체류 기간과 항목별 관광지출액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과 대유행이 가장 강한 영향을 미쳤던 2020년 2월에서 2021년 12월까지의 영동지역 관광객의 체류 기간과 지출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러나 체류 기간 및 지출 측면에서의 변화는 2019년 관광객과 대유행 기간 관광객을 단순히 비교하여 파악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자연재해로 인해 대유행 기간 영동지역 관광 참여자가 2019년과 본질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유행 기간에는 감염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령층의 관광활동 참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성향점수매칭 방법을 이용한다. 성향점수매칭 방법은 실험 참여자를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사이에 임의 배정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편의가 최소화된 처치효과를 추정할 수 있게 해주는 분석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의 발생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자연 실험(Natural Experiment)에서 처치(Treatment)에 해당한다. 그리고 대유행하에서 강원도 영동지역을 방문한 관광객들은 처치집단(Treatment Group)에 속하며, 발생 이전 2019년 강원도 영동지역을 방문한 관광객들은 통제집단(Control Group)에 속한다.

본 연구에서는 2019년, 2020년, 2021년 국민여행조사 원자료를 통해 해당 관광객들을 관측(Observation)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경우 여행 참여자에 대한 집단 간 임의 배정(Random Allocation)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경우 두 집단 간의 단순 비교를 통해서는

2) 월별 전국 소비자물가지수는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2023년 9월 1일 검색)에서 내려받아 사용하였음.

코로나19 대유행이 강원도 영동지역 관광객의 체류 기간과 지출에 미친 영향을 분리하여 분석할 수 없다. 그러나 성향점수매칭 방법을 적용하면 혼란요인(Confounding Factor)의 영향을 최대한 배제한 상태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이 미친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대유행 발생 전후의 설문조사 데이터에 성향점수매칭 방법을 적용한 대표적 연구로는 Sibley, Greaves, Satherley and Wilson et al.(2020), Pauksztat, Andrei and Grech(2022), Baños-Pino, Boto-García, Del Valle and Sustacha(2023), Ananda, Karunasena and Pearson(2023) 등이 있다.

성향점수매칭 방법에서는 처치집단에 속하는 개별 실험 참여자에 대해 최대한 유사한 속성을 가진 통제집단에 속하는 참여자(들)를 매칭한다. 그리고 처치집단과 유사한 속성을 가진 참여자로 구성된 새로운 통제집단 간의 비교를 수행한다. 여기서 성향점수(Propensity Score)란 실험 참여자의 속성(공변량, Covariates)을 고려할 때 개인이 처치집단에 포함될 확률을 의미한다. 그리고 확률이기 때문에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성향점수는 실제로는 처치집단에 포함될 확률을 예측하기 보다는 개인의 속성을 아우르는 복합점수(Composite Score)로써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차이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여 두 집단에 참여하는 실험자의 속성을 비교하기 위해 사용한다. 성향점수의 분포가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사이에 유사해지면(Balanced) 성향점수를 얻기 위해 사용된 속성의 분포 역시 두 집단 간에 유사해진다. 만약 두 여행자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영동지역 여행에 참여할 성향점수가 0.8로 나타나 두 여행자의 속성을 고려한 결과 여행에 참여할 확률이 80%라면, 두 여행자 가운데 실제로 여행에 참여한 자와 참여하지

않은 자를 비교하면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측정할 수 있다. 성향점수 추정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변수는 처치집단 참여와 실험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성과(Outcome)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³⁾

성향점수매칭 방법을 이론적 근거가 되는 잠재성과모델(Potential-Outcome Model)에 따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⁴⁾ y_i 는 개인 i 의 반응(성과)을 의미하며 D 는 처치(Treatment) 수준을 나타낸다. D 는 처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0 값을, 처치가 이루어진 후에는 1 값을 가진다. 이 경우 y_{1i} 는 개인 i 가 처치를 받았을 경우의 반응(성과)을, y_{0i} 는 개인 i 가 처치를 받지 않았을 경우의 반응(성과)을 나타낸다. 만약 개인 i 에 대해 y_{1i} 와 y_{0i} 가 모두 관측 가능하다면 처치의 효과는 <식 1>에서와 같이 δ 에 의해 측정될 수 있다. 그리고 <식 2>에서와 같이 δ 의 기댓값을 평균 처치효과(Average Treatment Effect: ATE)라 한다. 그러나 관측 데이터에서는 개인에 대해 두 가지 경우를 모두 관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delta = y_{i1} - y_{i0} \quad \text{<식 1>}$$

$$ATE = E(\delta) \quad \text{<식 2>}$$

Rosenbaum and Rubin(1983)에 의해 제안된 성향점수매칭 방법은 인과추론(Causal Inference)의 다양한 방법 가운데 하나로 y_{1i} 와 y_{0i} 의 동시관측 불가로 인해 측정하기 어려운 처치효과를 일련의 가정에 근거한 통계적 분석을 통해 파악하는 것이다. 성향점수매칭 방법에서는 관측이 불가능한 개인의 서로 다른 처치수준($D=0$ 또는 $D=1$)에서의 성과를 다른 처치수준에 속하는 유사(매칭된)한 개인(들)의 성과 평균을

3) Bai and Clark(2018)의 설명에 따름.

4) 잠재성과모델에 따른 성향점수매칭 방법에 대한 설명은 Cameron and Trivedi(2022)에 따름.

통해 구한다. 여기서 개인 간의 유사성은 <식 3>과 같은 성향점수를 기준으로 측정한다.

$$\Pr(D=1 | x), x: \text{공변량} \quad \text{<식 3>}$$

성향점수매칭 방법을 이용하여 평균 처치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식 4> 그리고 <식 5>와 같은 두 가지 가정이 충족되어야 한다. <식 4>는 조건부 독립 가정(Conditional Independence Assumption)으로 만약 공변량(x)을 적절하게 통제하면 잠재적 결과와 처치 수준과 관계는 서로 독립적이라는 것이다. <식 5>는 공통 서포트 가정(Common Support Assumption)으로 분석 샘플 내의 모든 개인은 처치를 받을 양(+의 확률)을 가지며 어떤 개인도 반드시 처치집단에 속하거나 비처치집단에 속하지 않는다는 가정이다.

$$y_0, y_1 \perp D | x \quad \text{<식 4>}$$

$$0 < \Pr(D=1 | x) < 1 \quad \text{<식 5>}$$

IV. 분석 결과

<표 3>은 성향점수매칭을 통해 코로나19 대유행이 영동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체류 기간과 1인당 1일 항목별 지출 비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공변량에 대한 정의를 보여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향점수매칭 분석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공변량은 처치집단 참여와 실험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성과(Outcome)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본 연구에서의 공변량에 대한 선정은 Baños-Pino, Boto-García,

표 3_ 성향점수매칭 추정에 사용된 공변량

변수	정의
성별	1: 남성, 2: 여성
연령 구간	1: 15~19세, 2: 20대, 3: 30대, 4: 40대, 5: 50대, 6: 60대, 7: 70세 이상
가구소득	1: 100만 원 미만, 2: 100만 원~200만 원 미만, 3: 200만 원~300만 원 미만, 4: 300만 원~400만 원 미만, 5: 400만 원~500만 원 미만, 6: 500만 원~600만 원 미만, 7: 600만 원 이상
동행인수 구분	1: 1인, 2: 2인, 3: 3~4인, 4: 5~10인, 5: 11인 이상
자가용 이용	0: 비이용, 1: 이용
호텔 숙박	0: 비이용, 1: 이용
가족, 친척 여행	0: 비(非)가족 친척 여행, 1: 가족 친척 여행
거주지 구분	1: 강원도, 2: 수도권, 3: 기타 지역
방문 월	1~12월

Del Valle and Sustacha(2023)를 참고하여 이루어졌다. <표 4>는 본 연구에서 성향점수매칭에 사용된 공변량의 통계량을 보여준다. <표 5>는 코로나19 대유행 이전(2019년)과 대유행 시기(2020년 2월~2021년 12월) 성과변수(체류 일수 및 지출변수)의 통계량을 보여준다.⁵⁾ <표 5>에서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과 대유행 시기인 2020년 2월에서 2021년 12월 기간을 비교해 보면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음식점비, 식료품비, 쇼핑비 등은 증가한 반면 체류 일수, 교통비, 귀금속비, 기타 지출 등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⁶⁾ <표 6>은 성향점수매칭 방법을 적용하여 대유행으로 인한 평균 처치 효과(Average Treatment Effect: ATE)를 계산한 결과이다. 성향점수매칭 방법에 의해 평균처치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STATA18의 teffects psmatch 명령어를 사용하였고 성향점수는 프로빗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되었다. 평균처치효과를 계산하기

5) <표 4>와 <표 5>는 성향점수매칭이 이루어지기 전의 수치임.

6) 국민여행조사 마이크로데이터 가운데 영동지역을 여행한 응답자는 2019년 1,338명, 2020년 701명, 2021년 785명이었고, 이 가운데 2020년 1월 여행자 73명과 1인당 지출액이 0원인 50명을 제외한 총 2,701명의 응답 데이터가 분석에 이용되었음.

표 4 _ 공변량에 대한 통계량

(단위: 명, (%))

구분	2019년	2020년 2월~2021년 12월	전체	P-Value
N	1,297 (48.0)	1,404 (52.0)	2,701 (100.0)	-
성별				
남성	641 (49.4)	704 (50.1)	1,345 (49.8)	0.708
여성	656 (50.6)	700 (49.9)	1,356 (50.2)	-
연령 구간				
15~19세	52 (4.0)	44 (3.1)	96 (3.6)	<0.001
20대	218 (16.8)	260 (18.5)	478 (17.7)	-
30대	259 (20.0)	303 (21.6)	562 (20.8)	-
40대	292 (22.5)	338 (24.1)	630 (23.3)	-
50대	247 (19.0)	261 (18.6)	508 (18.8)	-
60대	136 (10.5)	156 (11.1)	292 (10.8)	-
70대 이상	93 (7.2)	42 (3.0)	135 (5.0)	-
가구소득 구간				
100만 원 미만	39 (3.0)	19 (1.4)	58 (2.1)	<0.001
100만 원~200만 원	65 (5.0)	38 (2.7)	103 (3.8)	-
200만 원~300만 원	144 (11.1)	136 (9.7)	280 (10.4)	-
300만 원~400만 원	280 (21.6)	260 (18.5)	540 (20.0)	-
400만 원~500만 원	300 (23.1)	267 (19.0)	567 (21.0)	-
500만 원~600만 원	269 (20.7)	299 (21.3)	568 (21.0)	-
600만 원 이상	200 (15.4)	385 (27.4)	585 (21.7)	-
동행인 수 구분				
1인	22 (1.7)	40 (2.8)	62 (2.3)	<0.001
2인	368 (28.4)	414 (29.5)	782 (29.0)	-
3~4인	684 (52.7)	803 (57.2)	1,487 (55.1)	-
5~10인	168 (13.0)	143 (10.2)	311 (11.5)	-
11인 이상	55 (4.2)	4 (0.3)	59 (2.2)	-
자가용 이용				
비자가용	169 (13.0)	75 (5.3)	244 (9.0)	<0.001
자가용	1,128 (87.0)	1,329 (94.7)	2,457 (91.0)	-
호텔 숙박				
비호텔	1,193 (92.0)	1,272 (90.6)	2,465 (91.3)	0.203
호텔	104 (8.0)	132 (9.4)	236 (8.7)	-
가족, 친척 여행				
0	532 (41.0)	533 (38.0)	1,065 (39.4)	0.105
1	765 (59.0)	871 (62.0)	1,636 (60.6)	-
거주지 구분				
강원도	237 (18.3)	316 (22.5)	553 (20.5)	<0.001
수도권	745 (57.4)	863 (61.5)	1,608 (59.5)	-
기타 지역	315 (24.3)	225 (16.0)	540 (20.0)	-
방문 일				
1월	126 (9.7)	67 (4.8)	193 (7.1)	<0.001
2월	73 (5.6)	65 (4.6)	138 (5.1)	-
3월	78 (6.0)	59 (4.2)	137 (5.1)	-
4월	92 (7.1)	78 (5.6)	170 (6.3)	-
5월	97 (7.5)	116 (8.3)	213 (7.9)	-
6월	86 (6.6)	102 (7.3)	188 (7.0)	-
7월	170 (13.1)	201 (14.3)	371 (13.7)	-
8월	191 (14.7)	226 (16.1)	417 (15.4)	-
9월	54 (4.2)	114 (8.1)	168 (6.2)	-
10월	102 (7.9)	116 (8.3)	218 (8.1)	-
11월	88 (6.8)	113 (8.0)	201 (7.4)	-
12월	140 (10.8)	147 (10.5)	287 (10.6)	-

주: 빈도(%), 유의확률(p-value from Pearson test).

표 5_ 성과변수에 대한 요약 통계

(단위: 일, 원)

구분	2019년	2020년 2월~2021년 12월	전체	P-Value
N	1,297 (48.0%)	1,404 (52.0%)	2,701 (100.0%)	-
체류 일수	2.06 (0.82)	1.87 (0.76)	1.96 (0.80)	<0.001
지출 1인당 1일	79,107.63 (41,444.85)	82,754.09 (45,068.94)	81,003.09 (43,396.79)	0.029
숙박비 1인당 1일	15,224.72 (14,489.98)	16,042.99 (16,495.98)	15,650.06 (15,567.53)	0.172
음식점비 1인당 1일	30,649.47 (20,123.92)	34,913.76 (22,742.61)	32,866.08 (21,626.22)	<0.001
식료품비 1인당 1일	7,056.47 (14,573.97)	8,419.44 (12,226.04)	7,764.95 (13,419.70)	0.008
교통비 1인당 1일	19,243.67 (14,356.38)	17,840.50 (12,378.43)	18,514.29 (13,380.69)	0.006
여행활동비 1인당 1일	2,750.68 (7,652.61)	2,206.21 (8,649.07)	2,467.66 (8,188.75)	0.084
쇼핑비 1인당 1일	1,010.15 (6,226.60)	2,249.42 (16,035.10)	1,654.33 (12,353.25)	0.009
귀금속비 1인당 1일	108.63 (1,653.33)	0.00 (0.00)	52.16 (1,146.75)	0.014
기타 지출 1인당 1일	135.93 (1,477.60)	46.88 (495.12)	89.65 (1,085.06)	0.033

주: 평균(표준편차), 유의확률(p-value from a pooled t-test).

위해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에 속하는 개인은 반대집단에 속하는 개인 가운데 가장 성향점수가 가까운 1인과 매칭되었다.

무작위 배정의 경우 통제집단 혹은 처치집단에 속하는가는 분석단위가 가진 공변량의 수준과 무관하다. 그 결과 공변량과 측정하고자 하는 성과(Outcome)는

서로 독립적이다. 그러나 본 연구와 같은 관측연구에서는 분석단위가 처치집단에 속하는가는 공변량의 수준과 연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변량의 수준이 측정하고자 하는 성과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성향점수매칭에서 매칭이 잘 이루어질 경우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에 속한 분석단위들의 공변량 수준은 유사해지고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원인으로 인한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 성향점수매칭이 잘 이루어져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공변량의 수준이 유사해졌는가는 <식 6> 및 <식 7>과 같은 표준화된 차이(Standardized Differences)와 분산 비율(Variance Ratio)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Cameron and Trivedi 2022, 1295).

<표 7>은 본 연구에서의 성향점수매칭 결과에 대한 표준화된 차이와 분산 비율을 계산한 결과를 보여준다. <표 7>은 매칭 이후 70대 이상, 가구 소득 구간 600만 원 이상, 동행인 수 11인 이상, 자가용 이용, 거주지역 구분에서 전반적으로 표준화된 차이가 줄어들고, 분산 비율이 1에 가까워져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공변량의 분포가 균형(Balanced)에 가까워진 것을 보여준다.

표 6_ 평균 처치효과 추정 결과

(단위: 일, 원)

구분	2019년 VS. 2020년 2월~2021년 12월
체류 일수	-.2126558 (.0366748)***
지출 1인당 1일	3381.269 (1830.097)*
숙박비 1인당 1일	254.2405 (668.7656)
음식점비 1인당 1일	3033.715 (1109.852)***
식료품비 1인당 1일	1951.577 (555.5867)***
교통비 1인당 1일	-.721.9009 (615.1653)
여행활동비 1인당 1일	-.912.5279 (423.1954)**
쇼핑비 1인당 1일	1148.399 (379.2043)***
귀금속비 1인당 1일	-.101.2751 (51.62832)*
기타 지출 1인당 1일	-.88.36319 (43.19196)**

주: 1) 괄호 안의 숫자는 강건한 표준오차.

2) ***p<0.01, **p<0.05, *p<0.1.

표 7 _ 매칭 이후 공변량의 균형에 대한 평가

구분	표준화된 차이(Standardized Differences)		분산 비율(Variance Ratio)	
	매칭 전	매칭 후	매칭 전	매칭 후
성별				
여성	-0.0144093	0.0111053	1.000067	1.000132
연령대				
20대	0.0448476	0.021779	1.07905	1.039434
30대	0.039728	-0.0376106	1.058895	0.9500981
40대	0.0369117	0.0198808	1.04772	1.024255
50대	-0.0116169	0.0369914	0.981569	1.061056
60대	0.0201435	-0.0058774	1.052176	0.9856043
70대 이상	-0.1910861	-0.0242953	0.435951	0.8933609
가구 소득 구간				
100만 원~200만 원	-0.1198379	-0.0574667	0.553134	0.7412429
200만 원~300만 원	-0.0463904	-0.0024135	0.886312	0.9938045
300만 원~400만 원	-0.0766953	-0.0331413	0.891334	0.9521851
400만 원~500만 원	-0.1009464	0.046917	0.866115	1.067548
500만 원~600만 원	0.0136446	-0.0045761	1.019549	0.9933688
600만 원 이상	0.2955951	0.0206379	1.525873	1.028675
동행인 수 구분				
2인	0.0245608	-0.005734	1.023039	0.9945829
3~4인	0.0896324	0.0037324	0.982186	0.9990361
5~10인	-0.0865816	-0.0119032	0.811275	0.9704648
11인 이상	-0.2682754	-0.0025015	0.069956	0.9839791
자가용 이용	0.2684741	-0.0163767	0.446181	1.05205
호텔 숙박	0.0490494	0.0054358	1.154802	1.016879
가족 친척 여행	0.0624988	0.0204987	0.973403	0.9907332
거주지 구분				
수도권	0.0820578	-0.0083206	0.968797	1.003494
기타 지역	-0.2069517	-0.0240993	0.731804	0.9643355
방문 일				
2월	-0.045271	0.0085693	0.831208	1.036442
3월	-0.0823236	-0.0034338	0.712191	0.9857295
4월	-0.0631849	-0.0266982	0.796129	0.9048418
5월	0.0290817	0.0068162	1.09532	1.021307
6월	0.0249379	-0.0625016	1.08815	0.8089656
7월	0.0351427	0.0043771	1.076983	1.009576
8월	0.0379526	-0.0071332	1.075438	0.9865944
9월	0.1652809	-0.0093538	1.869605	0.9659163
10월	0.0146057	0.0554493	1.045986	1.185246
11월	0.0482154	0	1.170081	1
12월	-0.010509	-0.0117635	0.973445	0.9713592

Standardized Differences

$$= (\bar{z}_1 - \bar{z}_0) / \sqrt{(s_{z_1}^2 + s_{z_0}^2) / 2} \quad <식 6>$$

$$\text{Variance Ratio} = s_{z_1}^2 / s_{z_0}^2 \quad <식 7>$$

단,

z : 공변량

\bar{z}_1 : 처치집단에 속할 경우 z 의 표본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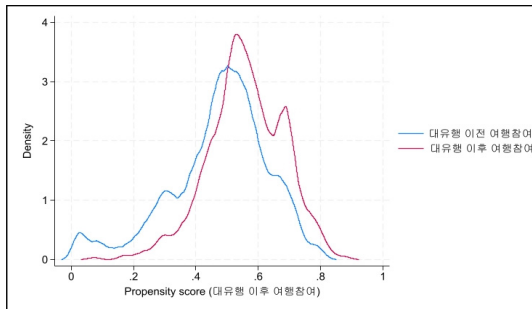
\bar{z}_0 : 통제집단에 속할 경우 z 의 표본평균

$s_{z_1}^2$: 처치집단에 속할 경우 z 의 표본분산

$s_{z_0}^2$: 통제집단에 속할 경우 z 의 표본분산

공통서포트 가정이 만족되는가는 2개의 서로 다른 처치수준(코로나19 상황에서의 여행 참여 VS. 비코로나19 상황에서의 여행 참여)에서의 성향점수 커널밀도 추정치 그래프를 비교하여 검토할 수 있다. <그림 1>에 제시된 성향점수 커널밀도 추정치(Kernel Density Estimate) 그래프는 공통 서포트 가정이 충족되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1 _ 통제집단과 처치집단의 성향점수 커널밀도 추정



분석 결과는 코로나19 대유행이 관광객의 체류 일수를 0.21일 정도 감소시켰으며, 총지출(1인당 1일)은 평균 3,381원 증가시켰음을 알 수 있다. 세부 항목 가운데 음식점비(1인당 1일)는 평균 3,033원, 식료품비

(1인당 1일)는 평균 1,952원, 쇼핑비(1인당 1일)는 1,148원 증가하였다. 반면 여행활동비(1인당 1일)는 평균 913원, 귀금속비(1인당 1일)는 평균 101원, 기타 지출(1인당 1일)은 평균 88원 감소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관광객의 체류 기간이 약간 감소하였으나 지출의 경우 음식점비 지출, 식료품비 지출, 쇼핑비 지출이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에 비해 두드러지게 증가하였다. 반면 여행활동비 지출은 감소하였다. 이 결과는 감염의 위험이 증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근거리 방문을 선호하고, 관광지의 박물관 등 문화시설을 방문하거나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감소한 반면, 테이크아웃이나 배달 옵션을 이용 가능한 음식에 대한 소비를 늘렸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근거리 여행의 증가와 이와 관련된 체류 기간의 감소(숙박여행의 감소) 현상은 노운호, 황영현(2023), 강현수(2021)의 연구에서도 발견된 바 있다. 대유행 이후 음식 관련 관광활동과 배달 혹은 테이크아웃 옵션의 사용 증가는 다양한 통계와 연구에서 확인된다. 한국관광 데이터랩 내비게이션 검색건수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에서 2023년 사이 음식과 관련된 목적지 검색건수는 다른 모든 목적지 유형에 비해 가장 많다.7) 또한 음식과 관련된 전국적 검색건수는 대유행 이전인 2019년 약 9,200만 건에서 대유행 이후 2020년 1억 1,500만 건, 2021년 1억 4,500만 건, 2022년 1억 7,900만 건, 2023년 2억 100만 건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반면 체험관광 목적지에 대한 검색건수는 2019년 약 190만 건, 2020년 160만 건, 2021년 170만 건, 2022년 230만 건, 2023년 280만 건으로 대유행 이후 2020년과 2021년에 크게 감소하였다. 김영목, 김선철(2022)은 네이버, 다음, 구글 등 포털 사이트 빅

7) 내비게이션 검색건수는 한국관광 데이터랩(<https://datalab.visitkorea.or.kr>, 2024년 6월 1일 검색)에서 내려받았음.

데이터에 대한 토픽모델링 분석을 통해 대유행 이전에는 주말 가족과 외식이라는 주제가 발견된 반면 대유행 이후에는 배달 맛집, 관광지 맛집 관련 주제가 부각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이상원, 전현배(2022)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전국 음식점 주문에 대한 카드거래 자료를 이중차분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배달앱 서비스를 이용한 업체의 경우 미이용 업체에 비해 25% 정도 매출이 높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영주, 김기진(2021)은 2020년 5월 대구 시민에 대한 조사를 통해 배달음식 주문 건수가 대유행 이전 1주일 평균 1.48회에서 대유행 이후 1.7회로 증가한 것을 발견하였다. 강현수(2021)는 대유행 이후 여행지 활동 중 음식관광이 증가한 것을 발견하였다. 이상원, 전현배(2022)와 이영주, 김기진(2021)의 연구는 관광지 음식점에 제한된 것은 아니나 이상의 통계수치, 관련 연구 결과,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대유행 이전부터 우리나라 관광지에서 음식점 방문에 대한 강한 수요가 있었으며, 대유행 이후 배달 혹은 테이크아웃 옵션이 강한 수요를 만족시키면서 감염 위험을 낮추는 수단으로 활발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Wang, Zhao, Tian and Min et al. 2022; Gavilan, Balderas-Cejudo, Fernández-Lores and Martínez-Navarro 2021).

<표 7>의 결과는 증가한 지출항목과 감소한 지출항목에서 Baños-Pino, Boto-García, Del Valle and Sustacha(2023)의 연구와 다소 차이가 존재한다. 이것은 분석시기, 분석대상 지역이 가진 특성, 지출항목의 분류 등의 차이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Baños-Pino, Boto-García, Del Valle and Sustacha(2023)의 연구와 본 연구에서의 대상지역, 분석시기, 항목구분의 차이를 살펴보면 Asturias 지역의 면적은 1만 604km²인 반면 강원도 영동지역은 전체 면적이 3,808km²이다. 즉, Asturias 지역은 영동지역의 약 2.8배

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동 연구에서 사용된 2020년 데이터의 경우 7월과 9월에 수집된 것이다. 스페인 정부는 2020년 3월 국가비상사태를 발령하고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한 지역봉쇄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2020년 6월 들어 지역봉쇄가 풀리고 타 유럽지역으로부터의 입국이 허용되었다(Minondo 2021). 스페인의 백신접종은 2020년 12월부터 시작되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백신접종은 2021년 2월부터 시작되었다. 동 연구에서 음식 관련 지출은 숙박장소 이외에서의 지출만 포함하고 있다. 즉, 교통비 등 항목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지의 면적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비용항목을 측정하는 방법도 다르다.

더욱이 Baños-Pino, Boto-García, Del Valle and Sustacha(2023)의 연구는 백신접종이 시행되기 전 데이터를 분석하였고 본 연구는 백신접종 이후 시기를 포함한다. 안지선, 박만규(2023)와 Okafor and Yan(2022)의 연구는 코로나19 백신접종은 사망률을 낮추고 사망률의 하락은 관광활동을 증가시킨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Baños-Pino, Boto-García, Del Valle and Sustacha(2023)의 연구 결과는 지역봉쇄가 해제된 지 얼마 되지 않고 백신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관광 참여자가 넓은 영역에서 안전한 장소와 야외활동을 추구하는 행태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가 Baños-Pino, Boto-García, Del Valle and Sustacha(202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점은 대유행 시기 관광객이 여행에서 안전과 동시에 여행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어떤 항목의 지출은 감소시킨 반면 어떤 항목은 증가시켰다는 점이다.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2019년, 2020년,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한 국민여행조사 마이크로데이터와 성향점수매칭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코로나19 대유행이 영동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체류 기간과 지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성향점수매칭 분석 결과는 코로나19 대유행이 관광객의 체류 일수를 감소시켰으며 음식점비, 식료품비, 쇼핑비 지출은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 반면 여행활동비, 귀금속비 등은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감염병 대유행 상황이 재발하더라도 관광객들이 모든 항목의 관광 지출을 줄이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어떤 항목은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주목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강원도 영동지역에 대한 사례연구에서는 대유행하에서 관광객이 음식점비를 두드러지게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실내공간에서의 집합인원이 제한되어 음식점 내 식사가 어렵더라도 테이크아웃이나 배달 옵션을 이용하여 관광지에서 음식을 즐길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감염병 유행으로 다른 유형의 관광 행위가 어려울 때 실내공간에 집합하지 않고도 이용자에게 만족을 제공할 수 있는 미식 관광자원의 특성이 여행에서 즐거움과 안전을 추구하는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한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관광이라는 본질적 행위는 새로운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도 지속될 것이며, 관광객들은 상황이 허용하는 행위들 가운데 최대의 만족을 가져올 관광행위를 추구할 것이기 때문에 이 행위를 포착하고 여기서 새로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지역의 관광경제를 활성화할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난 추세는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전 지구적 감염병 대유행이 재현될 경우 강원도 영동지역에서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결국 개인은 관광이라는 본질적 행위를 포기할 수 없는 반면 동시에 위험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국경봉쇄와 같은 규제에 순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점을 고려하여 미래의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영동지역 관광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여행기간이 단축되더라도 이것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광객이 단위기간당 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방안이 모색될 수 있으나 감염병 확산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숙박시설을 공급(예: 고립된 가족 단위 숙박이 가능한 고급 숙박시설)하고 이로부터 좀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둘째, 새로운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실내공간에서의 집합인원이 제한되어 음식점 내 식사가 어렵더라도 테이크아웃이나 배달 옵션을 이용하여 관광지에서 음식을 즐길 수 있다. 감염병 유행으로 다른 유형의 관광행위가 어려울 때 실내공간에 집합하지 않고도 이용자에게 만족을 제공할 수 있는 미식관광의 특성은 음식점 등 미식 관광자원이 앞으로 영동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확충되어야 하는 중요한 근거이다. 양질의 음식점이 지역에서 공급되는 것은 주로 개인과 민간의 경제적 의사결정 영역에 기반한다. 따라서 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여지는 많지 않다. 다만 자치단체는 재능 있는 미식 창업가가 영동지역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식도시로서의 지역 이미지를 확립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강원도 영동지역에 대한 사례연

구를 통해 도출된 것이다. 따라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 우리나라 강원도 영동지역 이외의 주요 관광지를 방문한 관광객의 체류 기간과 지출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 강현수. 2021. 코로나19로 인한 국내관광 행태 변화 분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ang Hyunsoo . 2021. *A Study on the Behavioral Changes in Domestic Tourism due to COVID-19*. Seoul: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https://know.tour.go.kr> (2023년 9월 1일 검색).
Tourism Knowledge & Information System. <https://know.tour.go.kr> (accessed September 1, 2023).
-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 (2023년 9월 1일 검색).
Korea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https://know.tour.go.kr> (accessed September 1, 2023).
- 김상혁, 송희원. 2024. 코로나 19 확진자수와 확산 억제 대응지수가 국내 관광소비지출에 미친 영향: 충격반응검증을 적용하여. 이벤트컨벤션연구 53권: 79-98.
Kim Sang-Hyuck and Song Hee Won. 2024. The Effect of COVID-19 Confirmed Case and COVID-19 Containment and Health Index on the Domestic Tourism Expenditure Using Impulse Response Analysis. *Event & Convention Research* 53: 79-98.
- 김영목, 김선철. 2022.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코로나 전후 외식 소비 변화에 관한 연구. 상품학연구 40권, 1호: 91-101.
Kim Young-Mok and Kim Sun-Chul. 2022. A Study on the Changes in Eating Out Consumption Using Big Data After COVID-19. *Journal of Product Research* 40, no.1: 91-101.
- 노윤호, 황영현. 2023. K-prototypes 군집분석 알고리즘을 적용한 코로나19 팬데믹 전후의 국내 여행행태 비교 연구. 관광학연구 47권, 5호: 101-113.
Roh Yoonho and Hwang Yeong-Hyeon. 2023. Comparing domestic travel patterns between pre- and peri- COVID-19 pandemic: An application of the K-prototypes cluster analysis algorithm. *Journal of Tourism Sciences* 47, no.5: 101-113.
- 박수경, 강영준, 천영서. 2024. 코로나 19 전파가 제주로의 관광 및 제주도민의 지출에 미친 영향.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8권, 1호: 157-172.
Park Sookjung, Kang Young-jun and Cheon Youngseo. 2024. A Study on th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Tourism and Local Expenditure in Jeju. *Korean Policy Sciences Review* 28, no.1: 157-172.
- 송희원, 정광민, 김상혁. 2022. 코로나 19 팬데믹 시기의 국가정책이 국내 관광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이벤트컨벤션연구 48권: 231-254.
Song Hee Won, Jeong Kwang Min and Kim Sang Hyuck. 2022. The Effect of National Policies on Domestic Tourism Expenditure under the COVID-19 pandemic. *Event & Convention Research* 48: 231-254.
- 안지선, 박민규. 2023. OECD 국가별 코로나19의 기술통계 분석. 응용통계연구 36권, 5호: 447-455.
An Ji-Sun and Park Mingue. 2023. Descriptive analysis of COVID-19 statistics across nations. *The Korean Journal of Applied Statistics* 36, no.5: 447-455.
- 양재동, 김근현. 2021. 빅데이터를 활용한 COVID-19가 미치는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호텔관광연구 23권, 4호: 49-61.
Yang Jae-Dong and Kim Geun-Hyeon. 2021. Analysis of the economic effect of COVID-19 on the tourism industry using big data: focusing on Jeju area. *Journal of Hospitality & Tourism Studies* 23, no.4: 49-61.
- 이상원, 전현배. 2022. 배달앱 이용과 음식점업 매출: 대구광역시 코로나 19 효과를 중심으로. 경제학연구 70권, 4호: 69-91.
Lee Sangwon and Chun Hyunbae. 2022. Online Food Delivery Platform and Restaurant Sales: Evidence from a Local COVID-19 Outbreak.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 Studies* 70, no.4: 69-91.
- 이영주, 김기진. 2021. Post-코로나의 식사행동 변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음식점 방문행동, 가정식사행동, 배달음식구매 행동을 중심으로. Culinary Science & Hospitality Research 27권, 1호: 133-142.
Lee Young-Joo and Kim Gi-Jin. 2022. Exploratory Study of Post-COVID-19 Changes in Eating Behaviors: Focused on Behavior of Restaurant Visit, Home Eating Behavior and Delivery Food Purchase Behavior. *Culinary Science &*

- Hospitality Research* 27, no.1: 133-142.
13. 이조은, 이경환. 2023. 코로나 19 감염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특성 및 공간적연결성 분석: 전국 24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국토연구* 116권: 25-38.
Lee Joeun and Lee Kyunghwan. 2023. Analysis of the Impact of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Spatial Connectivity on the COVID-19 Infections: A Case Study of 246 Cities in Korea. *The Korea Spatial Planning Review* 116: 25-38.
 14. 이진희, 박민숙, 이상원. 202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시공간적 확산 패턴 및 지역 간 감염 네트워크 분석. *국토연구* 110권: 43-62.
Lee Jin Hui, Park Min Sook and Lee Sangwon. 2021. Spatiotemporal Evolution and the Diffusion Pattern of COVID-19 in South Korea in Three Waves. *The Korea Spatial Planning Review* 110: 43-62.
 15. 한국관광공사. 2021. 관광 빅데이터 분석 가이드라인. <https://datalab.visitkorea.or.kr> (2024년 6월 1일 검색).
Korea Tourism Organization. Guideline for Analyzing Tourism Big Data 2021. <https://datalab.visitkorea.or.kr> (accessed June 1, 2024).
 16. 한국관광 데이터랩. <https://datalab.visitkorea.or.kr> (2023년 9월 1일, 2024년 6월 1일 검색).
Korea Tourism Data Lab. <https://datalab.visitkorea.or.kr> (accessed September 1, 2023).
 17. Andreana, G., Gualini, A., Martini, G., Porta, F. and Scotti, D. 2021. The disruptive impact of COVID-19 on air transportation: An ITS econometric analysis. *Research in Transportation Economics* 90: 101042.
 18. Aguiló, E., Rosselló, J. and Vila, M. 2017. Length of stay and daily tourist expenditure: A joint analysis. *Tourism Management Perspectives* 21: 10-17.
 19. Ananda, J., Karunasena, G. G. and Pearson, D. 2023. Has the COVID-19 pandemic changed household food management and food waste behavior? A natural experiment using propensity score matching. *Journal of Environmental Management* 328: 116887.
 20. Alirol, E., Getaz, L., Stoll, B., Chappuis, F. and Loutan, L. 2011. Urbanisation and infectious diseases in a globalised world. *The Lancet Infectious Diseases* 11, no.2: 131-141.
 21. Baños-Pino, J. F., Boto-García, D., Del Valle, E. and Sustacha, I. 2023. The impact of COVID-19 on tourists' length of stay and daily expenditures. *Tourism Economics* 29, no.2: 437-459.
 22. Bai, H. and Clark, M. H. 2018. *Propensity Score Methods and Applications*. Thousand Okas,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23. Boto-García, D. and Baños-Pino, J. F. 2023. Deep habits and travel resilience after COVID-19. *Tourism Economics* 29, no.2: 543-550.
 24. Boto-García, D. and Leoni, V. 2022. Exposure to COVID-19 and travel intentions: Evidence from Spain. *Tourism Economics* 28, no.6: 1499-1519.
 25. Brida, J. G. and Scuderi, R. 2013. Determinants of tourist expenditure: A review of microeconomic models. *Tourism Management Perspectives* 6: 28-40.
 26. Cameron, A. C. and Trivedi, P. K. 2020. *Microeconometrics Using Stata(Vol. 2)*. College Station, Texas: Stata Press.
 27. Dann, Graham M. S. 1977. Anomie, ego-engancement and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4, no.4: 184-194.
 28. Gavilan, D., Balderas-Cejudo, A., Fernández-Lores, S. and Martínez-Navarro, G. 2021. Innovation in online food delivery: Learnings from COVID-19. *International Journal of Gastronomy and Food Science* 24: 100330.
 29. Han, L., Goetz, S. J., Eades, D., Entsminger, J. and Arbogast, D. 2023. An early assessment of COVID-19's impact on tourism in US counties. *Tourism Economics* 29, no.5: 1355-1375.
 30. Iso-Ahola, Seppo E. 1982. Towards a Social Psychology Theory of Tourism Motivation: A Rejoinder. *Annals of Tourism Research* 9, no.2, 256-262.
 31. Lindell, M. K. and Perry, R. W. 2012. The protective action decision model: Theoretical modifications and additional evidence. *Risk Analysis: An International Journal* 32, no.4: 616-632.
 32. Llaneza Hesse, C. and Raya Vilchez, J. M. 2022. The effect of COVID-19 on the peer-to-peer rental market. *Tourism Economics* 28, no.1: 222-247.
 33. Minondo, Asier. 2021. Impact of COVID-19 on the trade of goods and services in Spain. *Applied Economic Analysis* 29, no.85: 58-76.
 34. Okafor, L. and Yan, E. 2022. Covid-19 vaccines, rules, deaths, and tourism recovery. *Annals of Tourism Research* 95: 103424.

35. Paukszta, B., Andrei, D. M. and Grech, M. R. 2022. Effects of the COVID-19 pandemic on the mental health of seafarers: A comparison using matched samples. *Safety Science* 146: 105542.
36. Ross, A. G., Crowe, S. M. and Tyndall, M. W. 2015. Planning for the next global pandemic. *International Journal of Infectious Diseases* 38: 89-94.
37. Rosenbaum, P. R. and Rubin, D. B. 1983. The central role of the propensity score in observational studies for causal effects. *Biometrika* 70, no.1: 41-55.
38. Sibley, C. G., Greaves, L. M., Satherley, N., Wilson, M. S., Overall, N. C., Lee, C. H. and Barlow, F. K. 2020. Effects of the COVID-19 pandemic and nationwide lockdown on trust, attitudes toward govern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75, no.5: 618-630.
39. Vayá, E., Garcia, J. R., Suriñach, J. and Pons, E. 2023. Effects of the COVID-19 tourism crisis on the Spanish economy. *Tourism Economics* 30, no.4: 1021-1038.
40. Wang, C., Meng, X., Siriwardana, M. and Pham, T. 2022. The impact of COVID-19 on the Chinese tourism industry. *Tourism Economics* 28, no.1: 131-152.
41. Wang, L. E., Tian, B., Filimonau, V., Ning, Z. and Yang, X. 2022. Th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revenues of visitor attractions: An exploratory and preliminary study in China. *Tourism Economics* 28, no.1: 153-174.
42. Wang, X., Zhao, F., Tian, X., Min, S., von Cramon-Taubadel, S., Huang, J. and Fan, S. 2022. How online food delivery platforms contributed to the resilience of the urban food system in China during the COVID-19 pandemic. *Global Food Security* 35: 100658.
43. Yousaf, A., Amin, I. and Santos, J. A. C. 2018. Tourist's motivations to travel: A theoretical perspective on the existing literature. *Tourism and Hospitality Management* 24, no.1: 197-211.

-
- 논문 접수일: 2024. 04. 20.
 - 심사 시작일: 2024. 05. 02.
 - 심사 완료일: 2024. 06. 04.

요약

주제어: 코로나19 대유행, 체류기간, 관광객 지출

본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2019년, 2020년, 2021년에 실시한 국민여행조사 데이터와 성향점수매칭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대유행이 강원도 영동지역을 방문한 관광객의 체류 기간과 지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성향점수매칭 분석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관광객의 체류 기간은 감소하고 식당, 식료품, 쇼핑 지출은 증가한 반면 여행활동과 귀금속비 지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강원도 영동지역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안전을 확보하면서 관광욕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 보여준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영동지역 방문 관광객들은 체류 기간 단축과 소소하지만 확실한 여행의 행복을 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류 기간 단축은 관광객들이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판단된다.